

국어 과목

1. 정답 : ②

해설 : 발표자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 내용인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 무엇을 그렸는지에 대해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청중의 대답과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정답 : ④

해설 : 자료 3은 연꽃 위에 신선을 그린 그림으로 이는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은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四神)이므로 적절한 자료가 아니다.

3. 정답 : ①

해설 : 발표자의 대답에 대한 청중의 질의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응답 내용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 적절한 청중의 질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는데요,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가 적절하다.

4. 정답 : ⑤

해설 : ㉔은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의 획일화로 인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상대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5. 정답 : ②

해설 : ㉑는 학생1의 첫 번째 발언에서, ㉒는 학생1의 두 번째 발언에서, ㉓는 학생1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정답 : ③

해설 : 2문단에서 장소의 획일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활동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7. 정답 : ③

해설 : 비평문의 초고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나)에서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8. 정답 : ①

해설 : ‘게임화(gamification)’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9. 정답 : ⑤

해설 : ㄴ은 성취감과 같은 보상이 즉시 제공되어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고, ㄷ은 수업에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과 적용하지 않은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의 학습 동기와 학습 성취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인과관계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10. 정답 : ⑤

해설 : 학습활동 (1)은 (나)의 학생이 퀴즈 대결을 하는 과제에서 다른 모둠을 꼭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이 지나치게 발동하여 모듬의 친구를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한 것을 반성하는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할 때 (나)글의 마지막 문단과 관련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은 ‘게임화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11. 정답 : ④

해설 : ‘새해맞이’와 ‘한몫하다’는 각각 ‘새(관형사)+해(명사)+목적격조사(을) 생략+맞(용언어간)+이(접미사)’와 ‘한(관형사)+몫(명사)+목적격조사(을) 생략+하다(용언)’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과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킨다.

12. 정답 : ③

해설 : ‘총각’은 ‘머리를 땀아 갈라서 틀어 맴’의 뜻으로 쓰였으나 그 의미는 사라지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남자’를 뜻한다. ‘수세미’가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꽃을 뜻하는 ‘수세미’의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기 때문이다. 수세미는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쓰이지 않는 ‘총각’과 유사하지 않다.

13. 정답 : ②

해설 : ‘㉠걸러서’는 ‘거르다’의 어간 ‘거르-’의 ‘-’가 ‘ㄹ’로 변한 ‘ㄹ’불규칙활용을 한 경우이다. 그런데 ‘푸르러’는 ‘푸르다’의 어간 ‘푸르-’에 어미‘-어’가 ‘ㄹ’로 변한 ‘ㄹ’불규칙활용을 한다. 따라서 같은 용언의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

14. 정답 : ①

해설 : ㉠은 인용절로 쓰인 것이 아니라 관형절로 쓰인 경우이다. 인용절은 직접인용인 경우는 인용절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라고, 하고’의 인용보조사를, 간접인용인 경우는 따옴표 없이 인용보조사 ‘고’를 사용한다.

15. 정답 : ③

해설 : (나)에서 ‘이제라[이제이다]’와 ‘아래라[아래이다]’는 ‘ㄱ’과 ‘ㄴ’의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생략되었다. 앞의 ‘ㅣ’ 모음 뒤에서 생략되는데, ‘ㄱ’과 ‘ㄴ’이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나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이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의 ‘불휘라[불휘이다]’에서도 ‘ㄱ’이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ㅣ’모음 뒤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이’가 생략된 것이다.

16. 정답: ①

해설: (가)는 북학파 중 박제가와 이덕무라는 두 학자의 18세기 중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과 청의 현실을 박제가는 주관적 태도로, 이덕무는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는 등의 두 학자 간의 견해 차이도 설명하고 있다.

17. 정답: ④

해설: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의 마지막에서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

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8. 정답: ⑤

해설: 이덕무가 말한 ‘평등견’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 태도를 뜻한다.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평등견’이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자는 인식 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의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속한 문장의 처음이 ‘이와 같이’로 시작하므로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그러므로 ㉠은 인구 증가로 인한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 정답: ④

해설: <보기>의 마지막에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가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1. 정답: ③

해설: ‘한정(限定)되다’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라는 뜻이고, ‘그치다’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은 매우 유사하다. 참고로 ‘범위가 일정한 부분에 한정되다.’라는 뜻의 ‘국한(局限)되다’와 ‘일정한 한도가 정하여지거나 그 한도가 초과되지 못하게 막히다.’라는 뜻의 ‘제한(制限)되다’도 ㉡의 ‘한정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2. 정답: ②

해설: [A]는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인 구어체(대화)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B]는 ‘잡힌다’, ‘따르고 있다’, ‘내린다’, ‘놓여진다’, ‘벌어진다’, ‘뚝하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현재형 시제(현재법)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23. 정답: ①

해설: ‘나는 ‘나미’, ‘학교 공부’, ‘아틀리에’ 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매일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중에 ‘나는 나미를 만나 전쟁 중에 T에서 D고지까지 급수차를 몰아갔던 경험담을 전한다.

24. 정답: ①

해설: ‘노인’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데,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였다. 이런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의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할 수는 없다.

25. 정답: ④

해설: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이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지만 한병장은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결눈질했을 뿐이다. 이런 한병장의 모습을 보며,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빙긋 웃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험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6. 정답: ⑤

해설: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7. 정답: ③

해설: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의 경우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는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8. 정답: ①

해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급부는 급식 계약을 승낙(ㄱ)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므로 급식 대금을 지급(ㄴ)해야 한다. 하지만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ㄷ).

29. 정답: ④

해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그러므로 <보기>의 경우는 을이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30. 정답: ②

해설: 대금을 받다, 편지를 받다 —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31. 정답 : ④

해설 :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아이(장사)와 유모의 대화를 통해,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소저와 승상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2. 정답 : ②

해설 :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동산의 화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므로 2번 선택지의 동산의 '화초'가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33. 정답 : ⑤

해설 : 파경노는 후한 상을 준다는 제안을 거절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34. 정답 : ②

해설 : 3문단에서 표현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화솥값을 정해 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면 특성이 화솥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5. 정답 : ②

해설 : 2문단에서 삼각형의 조합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6. 정답 : ④

해설 :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지만,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와 연산 시간은 동일하다. ①-연산시간이 짧아진다. ②-동시에 진행하려면 동일한 하나의 명령어가 필요하다. ③-GPU는 CPU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 ⑤-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달한다.

37. 정답 : ④

해설 : <보기>의 장면 3에서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점을 이루는 삼각형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38. 정답 : ⑤

해설 : (가)에서는 황혼의 달을 보고 ‘님이신가’라고 하고 있으므로, (나)에서는 창 밖의 낙엽 소리를 듣고 ‘님이신가’라고 하고 있으므로 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청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므로 독백적 어조도 적절하다.

39. 정답 : ⑤

해설 :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더위와 추위가 가자마자 곧 다시 온다는 의미로,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의미이므로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0. 정답 : ⑤

해설 :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내적 고요함을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외적 고요만으로는 이겨 내기 어렵다는 내적 고요함을 긍정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정답 : ③

해설 : (가)에서는 ‘님’의 부재, (다)에서는 ‘옛 집’의 부재 상황을 나타내며 각각의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정답 : ③

해설 : 종약 이후 세 번째 문단에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3. 정답 : ⑤

해설 :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을 그리워 하는 모습을 통해 애달픈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44. 정답 : ②

해설 : 어떠한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헤집는 소리 같기도 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 ④

해설 : ‘복된 눈’은 고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지만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는 나타나지 않고,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아 그 언덕에 서 있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이지만 귀환에 대한 기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서는 귀향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